

## 페미니즘과 진화생물학의 화해

- 다윈주의 페미니즘의 가능성

김성규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 차 례

1. 서론 - ‘말 걸기’
2. 성선택(Sexual Choice) 이론이란?
3. 페미니즘 입장론의 과학관과 진화 생물학에의 적용
  - 3.1. 과학에 대한 페미니스트 인식론 - 경험론, 입장론, 포스트모더니즘
  - 3.2. 진화생물학에 대한 페미니스트 입장론의 비판
  - 3.3. 페미니스트 입장론에 대한 진화생물학의 반박
  - 3.4. 필자의 생각 - 페미니즘에 의해 ‘진화 된’ 진화생물학
4. 진화생물학을 통한 성매매와 성폭력 분석
  - 4.1. 기존 페미니즘의 입장 - 권력적 접근(Dominance Approach)
  - 4.2. 진화생물학의 분석
5. 결론: 문화/생물학의 이분법을 넘어서 - 다윈주의 페미니즘의 가능성과 필요성
  - 5.1. ‘화해’ - 다윈주의 페미니즘의 유용성과 필자의 제안
  - 5.2. 문화/생물학 이분법을 넘는 통합학문의 시대

\* 참고문헌

## 1. 서론 - ‘말 걸기’

지난 1998년 5월, 잡지 월간 『말』에는 「내가 과학칼럼 연재를 중단한 이유」라는 글이 게재됐다<sup>1)</sup>. 이는 과학평론가 이인식씨가 1년 예정이었던 과학칼럼 연재를 4개월만에 중단한 이유와 소회를 밝힌 글이었는데, 그 연재 중단 사유는 다름 아닌 이화여대 여성학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과 한국여성의 전화 회원 등이 주축이 된 여성인권모임이 칼럼의 내용에 대해 『말』지에 격렬하게 항의했기 때문이었다. 이인식씨는 당시로서는 국내에서 낯선 분야였던 성선택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근친상간, 강간, 사이버섹스, 성의 결정 과정 등을 주제로 칼럼을 연재 중이었는데, 여성인권모임은 그의 칼럼에 대해 ‘과학이라는 이름의 성차별 이데올로기’, ‘가치관에 따른 이데올로기의 선별’이라는 등의 이유로 독자반론을 게재했고 결국 그의 과학칼럼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약 12년이 흐른 지금, 세상은 생물학에 주목하고 있다. IT(정보통신), NT(나노기술)와 더불어 BT(바이오테크놀로지)는 국가적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로 지정되고 유전자와 DNA는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았을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다. 이같은 생물학의 여러 분야 중 진화생물학<sup>2)</sup>의 약진은 두드러진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은 인류사의 중요한 고전으로 손꼽히고 있고,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나 『만들어진 신』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그밖에 에드워드 윌슨이나 스티븐 제이 굴드, 재레드 다이아몬드 등 진화론을 자신의 논의의 기반으로 삼는 학자들도 국내에 많이 소개되었다. 특히 진화생물학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에도 많은 영감과 통찰력을 제공하는 바, 이에 따라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서로 잇거나 접목하려는 학제 간 연구 및 이른바 ‘통섭’의 시도는 시대의 대세라고도 할 만큼 여기저기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이같은 시도가 눈에 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대적이기까지 하다는 점에서, 진화생물학과 페미니즘의 불편한 관계는 이인식씨의 『말』지 칼럼이 중단됐던 그때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듯 보인다. 이는 아마도 진화론이 ‘성’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 그 분야가 페미니즘과

1) 이인식, 「내가 과학칼럼연재를 중단한 이유」, 월간 『말』 1998년 5월 통권 143호, 1998.

2) 진화심리학, 사회생물학, 행동생태학 등은 각 학문의 강조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모두 ‘진화생물학’으로 총칭하고자 한다.

거의 대부분 겹치는데다가, 남녀 간 성의 관계에 대해 그간 페미니즘 진영에서 내놓았던 설명 및 분석들과는 너무도 다른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것이, 페미니스트들은 - 특히, 여성주의 경험론보다 입장론을 취하는 페미니스트들은 - 주류과학을 남성의 시각과 편견이 개입된 것으로서 남성에게 의한 여성의 지배도구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대적 관계에 어느 정도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 활발함의 정도는 아직 미약하지만, 일부 페미니즘적인 입장을 가진 진화생물학자들의 노력으로 페미니즘과 진화생물학의 화해를 모색하는 저술들이 한국의 대중들과 만나게 되었으며, 호주제 폐지를 생물학적으로 정당화한 진화생물학자의 주장이 호주제 폐지에 기여한 사실은 페미니즘과 진화생물학이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sup>3)</sup> 이에 힘입어 외국학계를 중심으로 다윈주의 페미니즘 혹은 진화 페미니즘의 맹아가 싹트기 시작했고<sup>4)</sup> 필자는 앞으로 한국의 페미니즘도 이에 큰 영향을 받으리라고 예상한다. 페미니즘의 역사를 살펴보면 페미니즘은 그 자체로도 하나의 독립된 학문분야임과 동시에 항상 자유주의, 맑시즘, 신사회운동, 포스트모더니즘 등 기타 다양한 학문적 논의와 상호작용하며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제 4기 페미니즘'라고 불리게 될지도 모를 다윈주의 페미니즘의 의의와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다윈주의 페미니즘의 주요한 이론적 전제인 진화생물학의 성선택 이론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개괄하고, 그간 성선택 이론이 주류 페미니즘 담론으로부터 배척당해왔던 이유와 그에 대한 극복가능성을 과학철학자 샌드라 하딩의 '페미니즘 입장론(Standpoint)' 논의를 중심으로 찾아보고자 한다. 그 후에 성선택 이론이 남녀 간 성문제를 새롭게 이해하는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표적 예로서 성매매와 성폭력 문제 분석에 성선택 이론을 적용해볼 것이다. 끝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유용한 분석도구로서 통합학문이 필요하다는 점과 성선택 이론의 본질은 결코 남녀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론이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

3) 남호연, 「호주제의 부계혈통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사회생물학 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석사학위논문, 2008.

4) 박순영, 「다윈주의 성선택 이론과 페미니즘 젠더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38-2, 한국문화인류학회, 2005, p. 31.

## 2. 성선택(Sexual Choice) 이론이란?

흔히 다윈과 리처드 도킨스로 대표되는 진화론의 핵심 주장은 이젠 대중들에게도 꽤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여기에서까지 자세하게 부연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핵심만 간략하게 간추리자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생명이라는 것은 개체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한 순간만 존재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순간적인 것이지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 유전되는 유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영속성을 가지며 따라서 사실상 생명은 유전자를 보존하는 기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성생식의 경우, 자신과 같은 유전자의 자손을 낳을 수밖에 없고 만약 그러한 상태에서 그 유전자에 불리한 환경(질병이나 자연재해 등)이 조성되면 그 유전자를 가진 모든 개체는 생존에 취약해진다. 따라서 생명은 성을 나누어 자신의 유전자를 반만 후대에 전달하는 대신, 훨씬 다양한 자손을 만드는 유성생식의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자손들 중 주어진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해 '자연선택'되는 개체만이 살아남아 생존과 번식을 하게 되며, 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은 유전자만이 후세로 계속 이어지게 되어 생명은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

하지만 다윈을 비롯한 진화론자들은 이 '자연선택'이라는 개념만으로는 생명의 다양한 활동과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사실 그야말로 생존 그 자체를 위해서는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자연현상을 관찰하면 생존과는 상관없이 생명체가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 예를 들어 천적에게 도망가야 하는 상황에서 분명히 너무나도 거추장스러운 수컷 공작새의 꼬리 등 - 현상이 너무도 많았던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진화생물학자들이 찾아낸 개념이 '성선택' 이론이다. 생명체들의 많은 활동 중 생명유지와 관련없는 많은 활동의 근본 원인은 더 나은 자손을 만들기 위해 더 나은 짝을 만나려는 남성과 여성의 전략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성선택 이론에서 남성(수컷)은 값싸고 흔한 정자를 항상 풍부하게 생산하고, 임신을 하지 않으므로 양육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므로 남성이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많은 배우자를 만나 번식행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를 고르는 데 신체조건 외에는 그리 까다롭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며, 가급적 많은 상대를 만나려 한다. 반면 여성(암컷)은 한정된, 그리고 배란기에만 수정 가능한 난자를 생산하고 임신과 출산을 하므로 양육에 투자

하는 노력이 수컷보다 높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자신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해줄 정서적 친밀감과 능력을 가진 배우자를 찾게 된다. 이렇게 남성과 여성 간의 생존전략은 거의 180도 다르며, 따라서 서로의 배우자를 찾는 데 있어 남성은 여성을 놓고 서로 '경쟁'하며 여성은 그 중에서 '선택'하는 갈등양상이 양성 간에, 그리고 동시에 동성 간에 펼쳐지게 된다. 이 결과 남성과 여성은 서로 상대에게 더 매력적인 개체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본성을 일정부분 포기하고 상대방의 이익에 복종하는 '진화'를 하게 되고 이는 인간사회의 습성이나 관습, 문화, 제도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일부일처제이다. 페미니스트는 일부일처제의 발생원인을 잉여 재산의 축적과 그 대물림을 위해 자신의 계통을 확실히 하려는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을 남성의 지배하에 묶어둘 필요성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진화생물학의 설명은 다르다. 여성은 정자만 공급하고 사라져버릴 남성개체보다는 꾸준히 옆에서 자신과 함께 양육을 담당해줄 남성을 가지길 바랐고, 남성들은 여성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선 이 요구에 굴복하고 성적인 자제력을 발휘해야 했다. 또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일부다처제 하에서는 우월한 수컷이 수많은 여성개체를 독점해버려 선택받지 못한 매력이 없는 개체는 도태돼버릴 위험이 있지만, - 사실 요즘에도 일부 연예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 단, 이제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 연예인도 많은 이성을 거느리기도 한다 - 일부일처제 하에서는 최대한 골고루 모든 남성 개체가 짝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sup>5)</sup> 이렇게 인류의 남성과 여성 조상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인류사회에서 일부일처제는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남녀 관계를 보는 현재 주류 페미니즘과 진화생물학의 시각차가 드러난다. 후술하겠지만, 이런 진화생물학의 설명을 여성도 성적 활동에서 주도권과 능동성을 가질 수 있다는 근거로 쓸 것인지 아니면 현존하는 남녀 사이의 권력을 은폐하는 편파적 이론이므로 폐기할 것인지는 페미니즘 진영의 선택에 달려있다.

---

5) 최재천, 「암수의 동상각몽」, 『네이버 캐스트 - 최재천 교수의 다윈 2.0(13)』, 2009. 10. 08. (<http://navercast.naver.com/science/biology/1241>)

### 3. 페미니즘 입장론의 과학관과 진화 생물학에의 적용

그간 진화생물학에 대한 상당히 많은 비판과 비난이 페미니스트 진영으로부터 쏟아져 나왔으나 그 중 상당수는 진화생물학에 대한 편견이나 왜곡된 이해에서 비롯된다.<sup>6)</sup> 예를 들면 자연도태의 경쟁논리가 자본주의를 닮았다고 비난하거나<sup>7)</sup> 19세기 사회진화론의 전과를 들춰내는 식<sup>8)</sup>이다. 물론 실제로 진화론이 경쟁을 자연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보고 있는 것도 맞고, 역사적으로 사회진화론이라는 이름으로 부적절하게 특정 집단을 박해하는 이데올로기로 쓰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생물학 이론을 선불리 사회과학 분야에 적용해 만들어낸 오류로서 최근의 진화생물학자들은 자본주의나 사회진화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의 이론을 쓰는 경우는 없다.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없이 다소 표현을 격하게 하거나 미숙하게 한 초기 진화생물학자들의 과오가 이런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킨 점은 인정하더라도 이같은 비판은 크게 검토할 가치를 가지지는 못한다.<sup>9)</sup>

반면, 진화생물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교함과 논리적 엄밀성을 갖춘 비판은 페미니스트 인식론 진영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 페미니스트 입장론의 선구자이자 저명한 여성주의 과학철학자 샌드라 하딩의 논의를 중심으로 페미니스트들의 입장과 진화생물학의 반론 그리고 필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3.1. 과학에 대한 페미니스트 인식론 - 경험론, 입장론, 포스트모더니즘

페미니스트 인식론은 그간 학계에서도 입장이 잘 정리된 분야이므로 이를 소개한 글을 요약·인용함으로써 그 정리는 충분하리라 생각한다.<sup>10)</sup>

하딩에 따르면 과학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입장은 크게 페미니스트 경험론, 페미니

6) 김성한, 「진화심리학이 성매매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철학연구 제82집』, 철학연구회, 2008, p.114

7) 연희원, 「다윈생물학의 남성중심주의비판: 여성주의시각에서의 철학적 비판」, 『범한철학』 제36집, 범한철학회, 2006, p. 295.

8) 김성한, 앞의 논문, p. 114.

9) 위의 논문

10) 조주현, 「웁건이 해체 - 샌드라 하딩과 페미니스트 인식론」,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나남, 2009, p. 454.



스트 입장론, 페미니스트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나뉘는데 ... 이 세 모델은 역사적 발전단계에 따라 입장론은 경험론에 대한 반론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은 경험론과 입장론에 대한 반론으로 등장하였지만 ... 여전히 서로 경합을 벌이고 있다 ...

먼저 페미니스트 경험론은 세계는 인식주체와 무관하게 존재한다고 보는 철학적 사실주의와 세계에 대한 모든 지식의 근원으로서 인식주체의 감각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경험주의적 가설을 인식론적 근거로 삼는다. 세계에 대한 진리는 체계적인 관찰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으며 관찰자의 사회적 위치는 중립적인 절차를 엄격히 지킴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성차별주의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연구결과가 나온다면 이는 체계적인 방법과 이론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

“나쁜 과학”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 경험론자들은 과학영역에서의 성차별적이고 용관행과 남성중심적 편견에 비판의 초점을 맞춘다. ... 경험론은 여성이 과학지식 축적에 여성으로서 어떤 특별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는 질문하지 않는다. ...

반면에 페미니스트 입장론은 인식론적 근거로서 역사유물론의 통찰력을 따른다. 입장론은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는 시각을 받아들이므로 입장론의 시각에서 보면 모든 진리란 근본적으로 존재를 통해 매개된 것이다. 예컨대 지식은 늘 역사상 특정 순간의 사회정치적 형성과정에서의 개인의 위치와 관련하여 매개된다. 그러므로 지배집단의 진리와 피지배집단의 진리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페미니스트 입장론에서 보면 과학도 물론 매개된 지식이다. 따라서 과학의 사회적 근원을 밝히는 것이 입장론의 목표가 된다. 과학연구는 누구를 위해 무슨 목적으로 지식을 축적하는가, 한 사회의 성별, 인종, 계급 문제와 과학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가 주요 관심사를 이룬다. ...

... 하딩은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이 모두 각각의 사회적 위치로 인해 현실인식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되어 있지만, 피지배집단의 삶의 위치에서 생각을 시작하는 것이 지배집단의 삶의 위치에서 생각을 시작하는 것보다 덜 왜곡된 지식을 산출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가치중립적 객관성을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페미니스트 포스트모더니즘은 현실에 대한 하나의 진실이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한다. ... 입장론이 여러 진실들의 판본들 중에서 덜 왜곡된 진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은 ... 주변인의 관점이라고 주장한 반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어떤 세계관도 편파성을 피할 수는 없으며 개인 관찰자의 특정한 사회정치적, 역사적 위치에 따라 세계관은 다르게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

### 3.2. 진화생물학에 대한 페미니스트 입장론의 비판

경험론은 페미니즘 진영 내에서도 ‘페미니즘이 과학에 기여하는 바는 여성과학자들의 수를 증진시키는 데 있으며 과학지식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본다’는 비판이 있을 만큼 그 한계가 어느 정도 분명하다. 반면 샌드라 하딩이 중심이 된 입장론은 이론적 정교함을 더해가며 여전히 페미니즘 진영 내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진화생물학에 대한 비판도 이에 기반하고 있는 바가 크다.

입장론은 경험주의 과학의 틀 안에서 진행되는 여성 학자들의 연구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면서, 과학 자체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한다.<sup>11)</sup> 아직까지는 입장론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진화생물학이라는 과학에 대한 직접적 비판이 가해진 문헌은 찾기 힘들지만, 입장론이 남녀 성의 구성에 대한 사회구성론적인 입장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때, 사회구성론에 기반한 생물학 비판은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다. 샌드라 하딩에 따르면,

생물학에서부터 시작해 보면, 성 연구자들은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근본적으로 인위적이라고, 즉 유전이나 호르몬 유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유아는 양성애적이거나, 프로이트의 말대로 ‘다형 도착적’이다. ... 그러나 이러한 생물학적 성차로부터 성인이 가지고 있는 젠더화된 성 정체성, 행동, 역할, 욕망이라는 완전한 구성물까지의 거리는 대단히 크며 그것에는 분명히 문화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양성 구유자의 성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 양성 구유자의 유아가 성인이 되었을 때의 성/젠더 정체성을 예견하는 것은 신체적 성이 아니라 부모의 기대이다. ... 사회적 기대가 성/젠더 정체성을 낳는 것이다. 나아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생물학에 관한 우리의 기대는 사회적인 세력들에 의해 형성된다. 생물학과 생물학 역사의 연구를 통해 사회 질서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싶어 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봉사할 것으로 보이는 생물학적 개념들을 만들어 낸다는 추론에 이르게 된다. ...<sup>12)</sup>

이에 따르면 결국 자연적 진화와 유전자에 의해 구현된 성차라는 진화생물학에서의 성차는 전혀 없거나 최소한 사소한 것으로서, 이를 부각시키는 것은 결국 ‘인간으로서’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와 문화에 의해’ 구성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11) 박순영, 위의 논문, p. 31.

12) 샌드라 하딩, 「자연자원: 과학에서의 젠더와 젠더화된 과학을 위한 도덕적 승인의 획득」, 『페미니즘과 과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p. 165.

은폐하는 것이 된다. 이는 특히 진화생물학 중에서도 남녀 간의 행동 성차와 성과 짝짓기의 진화를 연구한 성선택 이론에 직접 적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입장론자들은 재생산 전략의 차이에서 기원하는 남녀 간의 심리 차이에 대한 진화생물학적 설명이 사회적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진화생물학이 과학적 객관성으로 무장하고 인간사회의 성 고정관념을 그대로 재확인시켜 주는 성차별적 학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아무래도 입장론의 입장에서는 유전적 속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성별 차이라는 진화생물학의 주장은 인간 본성이 불가항력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아 인간을 ‘유전자의 꼭두각시’로 전락시킴에 따라 인간의 주체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개선의 노력을 좌절시키려는 주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듯하다.

### 3.3. 페미니스트 입장론에 대한 진화생물학의 반박

진화생물학이라는 학문 자체의 역사가 일천한 면이 있기 때문에 페미니스트와 진화생물학자간의 논쟁은 이제 - 최소한 국내에서는 - 시작에 불과하며 따라서 위와 같은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에 대한 진화생물학의 반박을 찾기도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논의로만 보면 페미니스트 입장론의 비판에 대한 진화생물학의 대응은 크게 입장론의 전제 자체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가하는 반박 대응과 페미니즘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그에 따라 진화생물학적 주장을 전개하는 수용대응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필자의 입장이기도 한 후자에 대해서는 3.4.에서 상술하고 여기서는 입장론에 대한 진화생물학의 반박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진화생물학의 ‘반박’의 핵심은 어느 정도 페미니스트 경험론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즉 과학적 지식의 형성에는 사회적 맥락뿐만 아니라 실제의 속성도 함께 작용하며, 이를 간과하는 논의는 논의 자체는 흥미로울지는 몰라도 그 실천력이 심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sup>13)</sup> 이런 논리를 밀고 올라가면 궁극적으로는 페미니즘의 섹스/젠더 구분의 정당성에까지 비판이 닿게 된다. 박순영에 따르면,

섹스/젠더 이분법이 한때는 학문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유용성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현재도 분석적인 유용성이 남아 있다. 그런데 이런 이분법으로는 섹스(생물학적 현상)에 개방된 현상으로서의 젠더(문화적 현상)를 다룰 수가 없다. 이러한 이분법을 극복

13) 박순영, 앞의 논문, p. 32.

하려는 학문적 시도는 생물학적 여성 범주를 인정하지 않는 노선의 연장선상에서 섹스를 실재하는 그 무엇으로 보기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입장이나 아니면 애매한 일종의 상호작용론으로 귀결되기가 쉽다. 섹스를 실재하는 그 무엇으로 보기를 거부하면, 구성되는 젠더만 남게 된다. 그러나 이 입장을 택하는 순간 위에서 언급했듯이 여성과 페미니즘은 다른 모든 것들의 바다 속으로 용해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상호작용론은 섹스와 젠더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구체화되지 않는 한 아무런 학문적 효용이 없는 공론이 되기가 쉽다.

섹스와 젠더가 이제는 일상의 용례에서 거의 구분 없이 성별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는 점이 이 이분법의 대중적 성공과 개념적 실패를 동시에 보여 준다. 사람들의 일상용법에서 섹스와 젠더의 경계가 분명치 못하다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섹스/젠더 이분법이 성공해서 사람들은 이제는 생물학적인 의미의 섹스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구성된 의미의 젠더로만 세상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인가? 아니면 젠더가 생물학으로부터 완전히 폐쇄된 채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젠더란 말이 이제는 일상적인 용법에서 종래의 섹스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뜻하는가? 후자가 자연선택에 의해 디자인된 유기체로서 인간이 지닌 인지적 속성과 상응하는 추론이다.

뿐만 아니라, 진화생물학자들은 인간의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는 입장론의 비판에 대해 “성선택 이론이 예측하는 성차의 양상들이 통상적인 젠더 스테레오타입과 유사한 점이 있다”면서도 “통상적인 젠더 스테레오타입과 상응성이 높은 것은 오히려 이론의 설명력에 대한 지지 증거일 수 있으며 그 자체로 비판받을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sup>14)</sup> 또 진화생물학에 가해지는 주된 비판 중의 하나인 ‘자연주의의 오류’, 즉 ‘자연적인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순영은 “우리는 이론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며 다음과 같이 답한다.<sup>15)</sup>

과학적 지식으로부터 당위가 도출될 수 없다는 윤리학의 명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회적 담론의 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쉽게 무시되어 과학적 지식이 윤리적, 정치적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고 또 무시 못 할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사실이다. (...) 인간 본성에 대한 이론은 분명히 존재와 당위를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암묵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정책적 결정을 내릴 때도 인간 본성에 대한 가정이나 지식에 기초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 과학이 또는 자연 질서가 내 편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결코 과학적 지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

---

14) 위의 논문, p. 61.

15) 위의 논문.

이와 동시에 박순영은 각주를 통해 “사실로부터 가치를 추출해 낼 수는 없다는 흠 이래 서양 윤리학의 명제가 도전받고 있다”며 “인간에 대한 자연주의적 설명이 모든 영역에 침투하는 대세의 일환인 것만은 사실”이라고 적고 있다.<sup>16)</sup> 그리고 “성차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설명을 제외한 어떤 것에도 폐쇄적인 태도를 계속 견지한다면 페미니즘의 지적 신뢰도에 손상을 가할 뿐”이라는 Vandermassen의 경고도 소개하고 있다.

### 3.4. 필자의 생각 - 페미니즘에 의해 ‘진화 된’ 진화생물학

그러나 필자는 박순영의 과학의 객관성에 대한 논의에 일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페미니즘 인식론의 논의를 통째로 뒤엎으며 페미니즘을 극복하려는 듯한 학문적 태도는 주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전술하였듯, 사실 페미니즘과 진화생물학의 관계가 이처럼 틀어지게 된 원인은 초기 진화 생물학자들의 경솔함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sup>17)</sup>, 진화론자들이 의도하였든 하지 않았든 간에 실제로 사회적 억압을 뒷받침하는 사회진화론이라는 역사상 과오와 악몽을 남긴 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페미니즘 진영의 우려도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힘을 얻고 있는 진화생물학은 19세기와 20세기의 사회진화론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그 생각의 기저에는 “모든 생명과 성은 주어진 환경에 각자의 생존과 번식전략을 통해 살아남은 개체들로서 결국 그 생존방식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두 평등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그리고 일반적 통념과 같이 진화생물학자들이 유전자 결정론자 혹은 유전자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한다는 환원론자라는 비판에도 어느 정도 오해가 있다. 제대로 된 진화생물론자라면 결코 생명체가 유전자의 꼭두각시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 구체적인 예가 일란성 쌍둥이다. 이들은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같은 자궁에서 컸을지언정, 미세한 수준에서나마 그들의 초기 발생 환경을 분명히 차이가 있었고, 더욱이 태어난 후에는 비록 한 집에서 자라도 조금씩은 다른 환경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완전한 복제품이 되지 않는 것이다. 유전자란 그저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지닌 화학물질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진화생물론자들은 사회현상도 생명현상의 일종으로

16) 박순영, 앞의 논문, p. 32.

17) 최재천, 앞의 글.

파악한다. 즉, 우리가 날개를 만드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 날개를 가질 수 없듯, 생명체가 하는 일이 유전자의 존재 이유에 어긋날 수 없음을 강조할 뿐이다.<sup>18)</sup> 결국 이러한 입장은 진화생물학의 ‘열린 본성’ 혹은 ‘확장된 표현형(extended phenotype)’<sup>19)</sup> 논의로 전개된다. ‘확장된 표현형’이란 생존과 번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당연히 사회나 문화, 제도와 관습을 포함한다)으로 확장된 적응 결과들의 집합으로 간주된 생명체를 뜻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페미니즘적인 문화와 제도 등을 만들어낸다면 결국 그것도 개체의 생존과 번식에 영향을 미치고 페미니즘적 문화와 제도에 적응한 개체들이 살아남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페미니즘과 진화생물학은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진화생물학은 생물학적 층위에서 발생하는 ‘원인(遠因, Remote Cause) 혹은 궁극인(窮極因, Ultimate Cause)’에 대한 설명이며 페미니즘은 인간 사회의 문화와 제도에서 발생하는 근인(近因, Proximate Cause)에 대한 설명이다. 이는 동시에 작용 가능한 서로 다른 층위의 이야기일 뿐, 서로 모순되거나 대립적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필자는 한걸음 더 나아가 진화생물학이 사회진화론에서 벗어나 오늘날처럼 모든 생명체의 평등을 기초로 한, 정제된 모습으로 바뀐 데에는 페미니스트들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한다. 과학 철학자 칼 포퍼에 따르면, 과학은 ‘반증 가능성’에 의해 구체화되고 단련되며 그 생명력을 얻는다. 즉 과학적 명제가 경험의 세계에 관련되어 있는 한, 그것은 반박될 수 있어야 하며,<sup>20)</sup> 그리고 그 반증 실험을 많이 견뎌낼수록 믿을 수 있는 이론이 된다. 오늘날 진화생물학이 사람들의 많은 주목을 받게 되고, 지배적인 학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페미니즘의 반박을 받고 자신의 논리를 더욱 정교화·체계화시켜나갔기 때문이다. 결국 페미니즘은 진화생물학의 반박가능성으로 작용했고, 진화생물학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한 셈이다. 이제 진화생물학은 페미니즘의 여러 탐구 대상에 대한 인식과 주장을 생물학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갖추게 된 것이다.

먼저 페미니스트 경험론의 주장대로 진화생물학계에 여성 학자들이 많이 진출하기

18) 최재천, 「사회생물학과 페미니즘의 화해」, 『여성시대에는 남자도 화장을 한다』, 궁리, 2003, p. 47.

19) 제프리 밀러, 「유혹의 예술」, 『연애: 생존기계가 아닌 연애기계로서의 인간』, 동녘 사이언스, 2009, p. 359.

20) 칼 포퍼, 『열린사회와 그 적들』 민음사, 1982, p. 39, p. 359 참조.

시작한 결과 기존의 남성 중심적 진화생물학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가장 직접적인 예가 진화생물학이 남성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만들었던 ‘사냥꾼 가설(남성 연대에 의한 사냥이 인류의 진화적 적응에서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학설)’에 대해 일군의 여성 영장류 학자들이 ‘여성 채집인 가설(여성에 의한 채집활동이 인류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역설)’을 주장함으로써 사냥꾼 가설의 이론적 허술함과 남성편향성을 폭로한 것이다.<sup>21)</sup>

하지만 진화생물학이 좀 더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만든 것은 과학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진 페미니즘의 목소리가 학자들의 입장에 반영된 것이다. 특히 페미니즘의 입장에 동조하는 - 해외에서는 리처드 도킨스, 국내에서는 최재천, 김성한 등이 대표적이다 - ‘남성’ 진화 생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에서 얻은 통찰력을 남녀평등의 근거로 사용하게 만든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며, 이는 결국 지식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페미니즘 입장론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페미니즘계 전반의 이런 노력의 결과, 동성애가 자연상태에서도 일정 부분 존재하는 자연적인 현상임을 통해, 리처드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에서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미국 종교계를 비판하고 있고,<sup>22)</sup> - 그는 종교계의 무조건적 낙태 반대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 최재천 교수는 여러 저술과 강의 등을 통해 여성의 세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여성성의 회복이 가정의 명예를 지고 살아야 하는 남성을 구원하리라고 조한혜정 교수와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sup>23)</sup> 또 그는 호주제에 대해 ‘생물학적 모순’이라는 공식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시함으로써 호주제 폐지에 일조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제프리 밀러 등은 성선택 이론을 근거로 아프리카 소녀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음핵 절단(할례)를 반대하고 있다.<sup>24)</sup>

어떻게 보면 진화생물학이라는 학문 자체도 결국 여성의 입장과 요구에 의해 자신을 변모시킴으로써 ‘진화’했다고도 볼 수 있겠다. 자신의 연구대상이 자신에게 적용된 재밌는 사례이다. 물론 진화는 진보가 아니다. 진화는 단지 주어진 환경에 적응했을 뿐이라는 점에서 무조건 옳거나 그르다는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진화생물학이 페미니즘의 요구에 맞춰 수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

21) 박순영, 앞의 논문, p. 33.

22) 리처드 도킨스, 「신앙과 동성애」, 『만들어진 신』, 김영사, 2007, pp. 439~454.

23) 최재천, 앞의 책, p. 36.

24) 제프리 밀러, 앞의 책, p. 321.

이라는 평가는 가능하리라 본다.

이제 필자는 진화생물학이 성 문제를 파악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페미니즘의 설명을 얼마나 잘 보완할 수 있는지 성매매와 성폭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4. 진화생물학을 통한 성매매와 성폭력 분석

### 4.1. 기존 페미니즘의 입장 - 권력적 접근(Dominance Approach)

페미니즘 중에서도 성매매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것은 주로 권력적 접근에 입각한 급진주의 페미니즘 진영이다. 엘리슨 재거에 따르면 남성이 만든 가부장제의 목적은 '여성신체에 대한 남성의 통제'에 있다.<sup>25)</sup> 즉 가부장제는 총체적인 지배체계로서 남성의 지배를 실현시키는 제도다. 가부장제는 여성으로 하여금 강요된 모성애와 성적 노예화, 그리고 여성신체에 대한 남성의 통제를 받아들이게끔 만드는데, 특히 성적 노예화는 가부장제의 모성 숭배에 대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여성의 성욕에 대한 경멸과 혐오를 통해 모성애를 강화시키고자 여성을 성적 노예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성적 노예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강간과 매매춘이다.

재거에 의하면 강간이 모든 사회에서 존재했던 것은 아니며 그것은 가부장제의 특징적 단면이다. 특히 전쟁 중에 여성들은 항상 강간을 당해왔으며, 승리자에 의해 정당한 전리품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분명 강간을 죄로 생각 하긴 하지만, 암묵적으로 강간을 일상적인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그것을 합법화하고 있다고 본다. 또 가부장제 하에서 강간이 나쁜 이유는 그것이 여성의 명예를 침범 하기 때문인데, 그 명예란 처녀성 또는 정절로서 규정되며 이는 오로지 자신의 남편을 위한 것이다.

매매춘은 강간의 다른 형태다. 전통적으로 규정된 강간, 매매춘 등은 여성의 성적 유혹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으로 그리고 남성의 성적 박력으로 규정되었다. 가부장적

---

25) 엘리슨 재거, 「급진적 여성해방론의 정치학」, 『여성해방론과 인간본성』, 이론과 실천, 1992, p. 291.



이데올로기는 매춘이 남성에게 의해 강요되어진다는 것을 거부하면서, 매춘부를 남성을 유혹하는 사람 혹은 남성에게 대한 착취자로 규정하고 있다. 매춘부는 남편을 위해 정절을 간직하고 있는 여성들과는 대조적으로 타락하고 천박한 여성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가부장제는 매춘부와 후에 부인이 되거나 특별히 어머니가 될 '존경받을 만한' 부인들 사이에 확실한 선을 긋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권력적 접근을 이해하는 데 있어 '섹슈얼리티'라는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조영미는 『섹슈얼리티 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sup>26)</sup>

섹슈얼리티란 성적인 욕망들, 성적인 정체성 및 성적 실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적인 감정과 성적으로 맺게 되는 관계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섹슈얼리티란 사회 구성론적 관점에서 개념화한 것으로 성을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들 내에서 모든 사회관계들과의 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 개념을 말한다.

섹슈얼리티는 성별뿐만 아니라 계급, 인종, 연령, 성적 선호, 규범, 제도들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다는 점에서 성을 유동적이고 다원적인 것으로 본다. ... 따라서 sex-gender-sexuality 사이의 고정적이고 일관된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남성중심의 사회라는 맥락에서 이 세 가지가 연관되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연적인 것이지 필연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는 성적 억압의 문제를 여성/남성의 구도로 풀어가기 보다는 성적으로 주변화된 집단의 억압을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는 데 우선을 둔다. 이들은 여성 억압으로서 성적 억압을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억압을 문제시하는 것이다. ...

다시 말해 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는 성적 위계화에 따른 성적 억압을 일차적으로 문제시한다. 즉 권력이 남녀관계의 중심에 오는 것이다. 역시 같은 견지에서 성매매와 성폭력에 대한 페미니즘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또 성매매를 성욕의 문제로 자연화하거나 사회구조의 문제로만 환원하게 되면 개인과 개인, 개인과 구조 사이에 존재하는 세세한 권력에 대한 민감성을 놓치게 된다. 특히 성매매는 성적 행위이자, 경제적 행위이다. 성윤리와 노동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 성적 행위에 돈이 매개된 행위의 특징은 '권력관계'가 개입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매매의 핵심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권력의 문제를 중심에 놓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sup>27)</sup>

26) 조영미, 「한국 페미니즘 성연구의 현황과 전망」,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1999, p. 24.

27) 원미혜, 「성매매, 경계를 두드리는 소수자의 물음들」, 『경계의 차이, 사이, 틈새 - 성매매공간의 다면성과 삶의 권리』, 그린비, 2008, p. 22.

여성주의자들은 성폭력을 성차별적인 구조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통제로 분석하였다. 특히 강간은 성을 통한 남성의 권력 행사로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집단적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라는 것이다.

남성이 정치적·경제적 영역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강간은 여성의 남성에 대한 종속의 결과일 뿐 아니라 여성을 종속 상태에 묶어 두기 위한 전략이다. 브라운밀러는 남녀간 권력이 불균형 상태이고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정의하는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태도가 지지된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강간은 여성을 지속적인 공포 상태에 두는 하나의 의식적인 겁주기의 과정으로, 강간과 강간 위협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방해하고 남성의 지배에 도전하는 기회를 차단하는 효과를 갖는다.<sup>28)</sup>

이와 같은 현실인식 하에서 권력적 접근 혹은 급진적 페미니즘의 문제 해결책으로 레즈비어니즘, 여성문화의 건설,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을 내세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론 없는 실천이자 자신의 육체에 대한 여성의 통제를 잃게 만들며, - 즉 여성 자신의 성과 출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위하여 남성과의 성관계를 선택하고 어린애 낳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급진적 페미니즘의 유일한 해결책은 레즈비언이 되는 것이다. - 분리주의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sup>29)</sup>

## 4.2. 진화생물학의 분석

### 4.2.1. 성매매<sup>30)</sup>

진화생물학이 전제하는 남성과 여성의 번식전략의 차이는 실제 사회에서 성매매에 관련해 발생하는 많은 현상을 적절하게 예측하고 있다.

a. 수요자로서의 남성, 비수요자로서의 여성: 진화생물학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남성의 생식 성공 여부는 성공적으로 교합하는 가임기 여성의 수로 결정되기 때문에 첫째, 남성은 가급적 많은 성 파트너를 가지려는 욕망을 진화시켰고, 둘째, 가급적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 성관계를 맺는 데 있어 감정적인 유대를 갖지 않거나 상대에 대한 면식을 전제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단기적 짝짓기에 있어 남성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의 조건은 상대방의 젊음과 건강이다.

28) 변혜정, 「성폭력 의미 구성과 여성의 차이」,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1999, p. 288.

29) 엘리슨 재거, 앞의 책, pp. 311~350.

30) 김성한, 위의 글을 논의를 요약한 것임.

이런 전제에 따르면 성에 대한 남성의 수요는 다수가 되게 되고 여성의 성에 대한 공급은 제한되어 남성이 성을 사게 될 유인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가정은 성을 팔거나 포르노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여성이 왜 젊고 건강한지 설명한다.

반면 여성은 성적인 다양성을 추구하기보다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고자 한다. 귀하고 비싼 난자를 가진 여성의 경우, 양육 책임을 짊어지지 않을 상대와의 성관계는 오히려 큰 손해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성 성매매 종사자가 설령 신체적 조건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들이 사회·경제적 지위나 능력이 없고 양육 부담을 지지 않는다면, 여성은 이들에게 성을 살 유인을 가지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젊고 건강한 여자는 굳이 성을 사지 않아도 원하는 남성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도 여성을 성매매의 비수요자로 만드는 이유다.

b. 남성의 성매매와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이중 잣대: 보통 남성들이 성매매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거나 자신이 직접 하기도 하면서도, 성매매에 연루된 여성을 도덕적으로 지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논리적으로는 모순이지만, 역시 진화생물학적으로는 예측 가능한 것으로, 그 이유는 남성의 입장에서 다수의 파트너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배우자의 성을 독점하는 것이 번식에 있어 최선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결국 남성의 이중 잣대는 다수의 파트너를 얻으려는 성향과 성적인 독점욕이 만든 문화적 결과물이다.

c. 페미니즘의 권력적 접근에 대한 보완: 성매매를 성욕의 문제보다도 남성의 권력이나 분노 혹은 열등감을 표현한다고 보는 권력적 접근은 성매매와 인간의 생래적인 욕구의 인과관계를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주지하듯이 이는 물론 그와 같은 시각이 남녀의 권력관계를 은폐하고 성매매의 불가피성을 함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문제로만 성매매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낳는다. 오직 권력만이 성매매의 목적이라면, 왜 그 대상은 항상 젊고 건강한 여성인가? 오히려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면 나이가 많고 신체적 매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여성이 상대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진화생물학은 이에 대해 아주 쉽게 답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공한다.

또 진화생물학은 성매매 종사자들의 이동이 빈번한 이유도 설명할 수 있다. 남

성이 계속 새로운 성적 대상을 찾기 때문이다. 만약 남성이 자신보다 권력적으로 열등한 존재로서 성적 서비스만을 요구한다면 아마도 그와 같은 욕구만 적절히 충족시켜주면 성매매 종사자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겠지만, 이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

권력적 접근이 가지는 또 다른 의문점은 권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만이 성을 사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성매매를 통해 남성이 권력을 확인하려 한다면 성을 사려는 사람은 권력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상당수는 여성이다 - 현실은 그렇지 않고 모든 남성 계층에 걸쳐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요약하자면 권력적 접근은 성매매에 남녀 간의 성별 권력이 개입한다는 것을 밝힌 공은 있으나 그것만이 성매매의 원인이라고 본다면 왜 성에 대한 수요가 주로 젊고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상대를 자주 바꿔가며 발생하는지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이에 대해 김성환은 성매매에서 남녀 간 권력이 작용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성욕'이라는 목표를 얻기 위해 부지불식간에 개입된 것으로 보는게 옳다는 생각을 밝힌다. 다시 말해 강도가 돈을 뺏으려 할 때 무력이라는 권력을 행사하지만 권력행사보다는 결국은 돈이 목적이듯 성매매도 가부장제 남성의 권력이 목적이라기보다는 결국 성욕 충족이 그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 인식의 차이는 그 해결책에 있어서도 투영될 수밖에 없다.

d. 성매매를 반대하는 이론으로서의 가능성: 위에서 말했듯,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성욕을 성매매의 목적으로 지목할 경우, 그것이 자연적이고 거스를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진화생물학에 반대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 문명이 자연적인 폭력욕구, 위계현상 등을 적절히 제어하거나 통제하면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진화생물학자들도 부인하지는 않는다. 어떤 자연적 욕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무제한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바로 도출되지 않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남성이 아닌 여성의 성 특성에 초점을 맞출 경우 진화생물학은 성매매 반대근거로서의 가능성을 보인다. 즉 일부 성매매 옹호론자들은 성매매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성매매를 옹호하기도 한다. 그들의 사정이 어찌됐든 일단 자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성매매를 선택한 이상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원미혜는 “과연 여성은 다양한 대안과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고,<sup>31)</sup> 많은 여성이 가난에 떠밀려 사창가를 찾게 되거나, 여건만 된다면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다는 성매매 여성이 96%에 달하는 현실은 원미혜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진화생물학도 여기에 일조할 수 있다. 바로 위에서 든 성매매 비수요자로서의 여성의 특징을 떠올리면 여성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했다는 논의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금세 드러난다. 그에 따르면 여성에게 성매매는 언제나 자신의 성적 결정권을 박탈당한 폭력인 것이다.

#### 4.2.2. 성폭력(강간)<sup>32)</sup>

a. 발생원인: 만약 남녀가 상대방의 특성과 무관하게 성관계를 맺고자 하고, 남녀의 성비가 1:1이라면 강간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 전제가 틀렸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남녀 관계에 있어 선택에는 일정한 기준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상대방 성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하는 개체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sup>33)</sup> 여기에다가 성매매를 설명할 때 언급했던 남녀의 번식전략의 차이까지 겹치면 - 여성은 선택 배우자를 결정하지 않는 편이 유리하다 - 그 불균형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한 교접만으로 자손을 탄생시킬 수 있는 남성은 시각적 자극 등 비교적 단순한 자극만으로도 쉽게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게 진화했다. 또 여성이 선별적으로 남성과 관계를 맺으므로 여성들로부터 소외된 남성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여성을 거느린 남성마저도 많은 배우자를 원하는 성향에 따라 성 파트너의 부족을 느낀다. 따라서 남성은 강간 가해자가 될 확률이 여성보다 훨씬 높아지며, 강간범과 일반 남성들 간의 강간에 대한 생각이 차이가 그리 크지 않게 만들었다.<sup>34)</sup>

31) 원미혜, 「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해야 하는가」,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1999, p. 183.

32) 김성한, 「강간에 대한 진화심리학의 설명 비판은 타당한가」, 『철학』 제89집, 한국철학회, 2006의 논의를 요약한 것임.

33) 한국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는 농촌총각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신부감을 찾지 못한 결과 외국인 신부들과 결혼을 하는 예가 급증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추세는 세계화와 여성주의에 관련해 또 다른 여성억압의 하나로서 논의될 수 있는 주제지만 여기서는 별론으로 하고, 최소한 한국이라는 공동체 단위 내부로 논의를 한정한다면, 이들은 여성의 선택에서 배제된 남성개체라고 인식될 수 있다.

34) 김성한, 앞의 논문, p. 147.

b. 여성은 왜 강간신고를 기피하는가?(정신적 고통의 근원): 왜 강간에 의한 정신적 고통은 일반적 폭력보다 훨씬 더 심할까? 단순히 가부장제에 의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성폭력이 일반 폭력과 동일하다면 위에 대답에 답하는 데 한계를 느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면 교육과 문화 등을 통해 성폭력과 강간의 경험이 일반 폭력과 별다를 바 없다는 것을 여성이 받아들이는 세상을 상상하는 게 가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실제적인 문제로 내려오면, 왜 성폭력 피해자는 신고를 꺼리는지가 문제된다. 권력적 접근은 가부장제가 순결과 정절을 뺀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찍기 때문이라고 답하겠지만, 이 역시 부당한 권력관계에 의한 폭력의 일종이라면 일반적 폭행과 굳이 다른 취급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런 한계가 나타나는 이유는 성폭력의 고통이 단순히 권력적 약자가 되어 결정권을 짓밟힌 데 따른 굴욕에서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성폭력의 고통은 위에서 설명한 남성의 배우자에 대한 성적 독점욕구와 연결된다. 남성은 항상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했는지에 대해 신경을 쓰게 되며, 여성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여성은 배우자의 독점욕을 좌절시켜 그에게 덜 매력적으로 비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정적으로 남성을 붙잡아 둘 필요가 있는 여성은 성폭행을 당했을 때 더욱더 큰 상처를 입게 된다. 이 같은 설명은 강간 피해자가 결혼을 했거나 애인이 있을 경우 더욱 정신적인 외상이 심하며, 가해의 심각성과 다소 무관하게 직접적인 성관계가 이뤄졌는지 여부, 격렬한 반항이 있는가에 따라 심리적 외상의 정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 등의 연구결과로 뒷받침 된다. 결국 남성의 이 같은 성적 독점욕구가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강간 피해자에게 자신의 피해를 감추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결국 여성은 신고를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c. 진화생물학은 강간을 옹호하는가?: 진화생물학이 더 이상 유전자 결정론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설명했으므로 부연 설명할 필요는 없으리라 보고 리처드 도킨스의 다음의 말로 대신하고자 한다. “우리는 유전자에 대항할 힘이 있으며,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이기적인 자기 복제자들의 전체적 지배에 반역할 수 있다.”<sup>35)</sup>

다만 한 가지 짚어둘 것은, 진화생물학은 ‘강간’의 불가피성을 말하는 것이 아

나라 '다수의 성 파트너를 갖고자 하는 성향'의 불가피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화생물학은 남성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야기하면서까지 성적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본성을 가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남성의 입장에서도 매우 치욕스러운 해석일 것이다. 다만 진화생물학은 남성 중에 자신의 욕구를 실행시키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개체가 심심찮게 나타나는 원인을 말할 뿐이다. 인간은 학습과 문화를 통해 욕구를 누르는 힘을 가지게 되었으며, 본능에 대항할 수 있다. 이것이 동물에 속하면서도 다른 동물과는 구별되는 인간의 능력이며 위대함이다. 그것을 거부하고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특별히 더욱 많은 고통을 야기 시키는 성폭력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범죄라는 결론은 진화생물학을 받아들여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성폭력이 여성에게 더욱 특별한 고통을 일으킨다는 주장은 여성을 성폭력으로부터 더욱 보호해야 할 필요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5. 결론: 문화/생물학의 이분법을 넘어서

### - 다윈주의 페미니즘의 가능성과 필요성

#### 5.1. '화해' - 다윈주의 페미니즘의 유용성과 필자의 제안

지금까지 필자는 진화생물학이 여성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려는 페미니즘의 이론적 틀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다. 서론에서 밝혔듯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생물학이 큰 주목을 받을 것이며, 인간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생물학에 많은 도움을 받으리라 확신한다. 페미니즘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물론 아직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선불리 말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조심스럽게 말할 필요도 있지만, 과학의 힘을 빌려 남녀 관계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페미니즘의 시도가 성공한다면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대표되는 제 3기 페미니즘을 잇는 제 4기 페미니즘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며, 더 큰 시각에서 보자면 그간 '인문·사회학 분야'에 머물렀던 페미니즘이 '자연과학'과의 접목을 모색했다는 점

35)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을유문화사, 1993, p. 301.

에서 근본적인 방향전환의 시도라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의 우려와 같이 그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던 두 학문분야가 협력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보통 자연과학은 현상을 이해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그치지만, 인문·사회과학은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규범성을 가지고 있다는 성격의 차이 때문에 그러한 '통섭'의 시도는 생각보다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간 페미니즘은 여러 학문적 조류와 잘 융합하며 현재까지도 잘 살아남고 있어 희망적이다. 또 일부 다윈주의 페미니즘 학자들은 벌써 진화생물학적 지식을 통해 양성 간 갈등이 발생하는 맥락을 예측하게 해 줌으로써 이를 통제할 전략을 수립하고 중재의 수단을 강화하는 데 나서고 있다. 실제로 다윈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남성의 폭력에 취약해질 조건을 예측하고, 가부장적 사회의 발생 조건과 대항 전략을 검토하고, 여성이 자원통제력을 소유하고 정치적 권력을 가지게 될 조건을 분석하는 등의 학문적 활동을 통해 성 평등과 여성의 자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 중이다.<sup>36)</sup> 원인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 그 해결책을 알기는 더 쉬워지게 마련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주제넘지만, 진화생물학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페미니스트들이 여성해방전략을 세우는 데 참고하면 좋을 조언을 몇 가지 하고자 한다.

1) 진화는 진보가 아니며, 현재 환경에 적응해서 잘 살아가고 있다면 그 종들 간에는 우열이 있을 수 없다. 진화생물학은 남성과 여성을 주어진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동등한 생명체로 본다는 점에서 페미니즘의 공통점 접근방식(Sameness Approach)과 통한다. 반면 둘의 변식 전략이 다르다고 말한다는 점에서는 차이점 접근방식(Difference Approach)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동시에 생명체가 생물학적 조건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으로 형성된 조건에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역시 연구대상으로 삼는다는 데에서 권력적 접근과도 큰 틀에서는 논리적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진화생물학을 통해 남녀관계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페미니스트들은 기존의 페미니즘 논의가 다윈주의 페미니즘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

36) 박순영, 위의 논문, p. 59.



2) 여성은 더 이상 성에 대해 수동적 존재가 아니다. 여성도 남성만큼이나 성에 대해서 적극적이지만 다만 그 전략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마저도 이제 과학의 발전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된다면 여성들은 성적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한 존재가 될 것이다.

3) 2)의 연장선에서, 번식과 재생산이라는 문제는 남녀 모두에게 있어 공히 중요한 문제이며, 양성 모두 경쟁과 선택의 압력에 직면한 존재이며 이는 각자의 생물학적 기반 그 자체에서 어느 정도 연유한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출산과 양육 등 사회가 당면한 재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는 한쪽 성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급진주의나 분리주의 페미니즘 전략은 성공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4) 역시 3)의 연장선에서, 남녀 모두 경쟁과 선택의 압력에 직면한 존재라는 점을 여성해방전략에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상대방 성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은 그 반대 성의 요구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페미니즘 목표 달성에 있어서 남성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때, 그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집단으로서의 여성이 내미는 요구인 것이다. 번식을 위해서 여성이 꼭 필요한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남성에게 성적 파트너가 되기를 거부하는 여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요구는 힘을 가지게 된다.

이 전략은 사회·문화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 외모 지상주의 철폐가 목표라면 가장 좋은 전략은 외모 지상주의에 동조하지 않도록 여성들을 설득하고 대다수의 여성들이 외모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문화가 조성되고 외모 가꾸기를 강요하는 남성들로 하여금 성 선택에서 배제되게 한다면, 남성들의 외모 지상주의는 상당 부분 약화될 것이다.

단, 여성 일반의 이익이 여성 개체의 이익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이 전략에서 탈퇴해 이익을 노리는 여성들이 많아질수록 전략의 힘이 약해질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다시 예를 들자면, 많은 여성들이 외모꾸미기를 거부하는 와중에 일부 여성들이 외모를 가꿈으로써 좋은 남성의 선택을 받게 되고, 그런 여성이 늘어간다면 전략은 와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5.2. 문화/생물학 이분법을 넘는 통합학문의 시대

사실 인간을 생물학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유독 페미니즘에 의해서만 배척되어 온 것은 아니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처음 출간했을 때 인간이 원숭이의 자손이라는 생각이 기독교세력에 의해 격렬하게 거부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종의 기원』이 출간된 지 15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진화론은 그간의 많은 오해를 털어내고 사회 각 분야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성’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인지 유독 페미니즘에서만은 그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재해석하고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당위의 영역이고 상대방은 ‘어떠한가’를 따지는 현실의 영역을 다루는 학문이기에 도움이 될 수 없으므로 현실은 무시한 채 당위의 영역에만 집중하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역설했듯, “인간이 어떻게 사는가”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바를 행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하는 바를 고집하는 군주는 권력을 유지하기보다는 잃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필자는 다윈주의 페미니즘의 가능성을 살펴보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이 새로운 학문을 페미니즘에 도움이 되는 학문으로 재평가하여 도움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이 학문을 영원한 페미니즘의 적으로 남겨둘 것인지는 여성해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 <참고문헌>

김성한, 「진화심리학이 성매매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철학연구』 제82집, 철학연구회, 2008, pp. 97~117.

\_\_\_\_\_, 「강간에 대한 진화심리학의 설명 비판은 타당한가」, 『철학』 제89집, 한국철학회, 2006, pp. 141~166.

남호연, 「호주제의 부계혈통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사회생물학 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석사학위논문, 2008.

네이버 캐스트, 『오늘의 과학』(<http://navercast.naver.com/science/list>), 「생물학 산책 - 최재천 교수의 다윈 2.0」

- 리처드 도킨스, 『만들어진 신』, 김영사, 2007.
- \_\_\_\_\_, 『이기적 유전자』, 을유문화사, 1993.
- 막달레나공동체 용감한여성연구소 엮음, 『경계의 차이, 사이, 틈새 - 성매매 공간의 다면성과 삶의 권리』, 그린비, 2007.
- 박순영, 「다윈주의 성선택 이론과 페미니즘 젠더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38-2, 한국문화인류학회, 2005, pp. 29~73.
- 샌드라 하딩,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나남, 2009.
- \_\_\_\_\_, 『페미니즘과 과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 앨리슨 재거, 『여성해방론과 인간본성』, 이론과 실천, 1992.
- 에드워드 윌슨, 『통섭: 지식의 대통합』, 사이언스북스, 2005.
- 연희원, 「다윈생물학의 남성중심주의비판: 여성주의시각에서의 철학적 비판」, 『범한철학』 제36집, 범한철학회, 2006, pp. 283~308.
- 월간 『말』, 1998년 1월호(통권 139호)~1998년 5월호(통권 143호)
-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2005.
- 제프리 밀러, 『연애: 생존기계가 아닌 연애기계로서의 인간』, 동녘 사이언스, 2009. (이 책은 『메이팅 마인드(The Mating Mind)』의 개정 보급판임.)
- 최재천, 『여성시대에는 남자도 화장을 한다』, 궁리, 2003.
- 칼 포퍼, 『열린사회와 그 敵들』, 민음사, 1982.
- 토머스 쿤, 『과학혁명의 구조』, 까치글방, 1999.
- 한국성폭력상담소 엮음,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1999.
- 한국여성연구소 엮음, 『새 여성학 강의』, 동녘, 1999.

## 심사평

### 장 려 상

김성규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 페미니즘과 진화생물학의 화해

- 다윈주의 페미니즘의 가능성

이 글은 페미니즘과 진화생물학이라는 두 학문분야를 연계하는 주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독창적이고 새롭다. 사회과학도로서, 또 학부생으로서 서로 다른 학문분야를 통합해서 사고하고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더구나 기존 학계에서 침례하게 대립되고 있는 두 학문분야의 차이가 어떻게 융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제 수업시간에 이 논지를 주장함에 있어 글쓴이에게는 무수한 비판과 저항이 따랐다. 그렇지만 글쓴이는 굴하지 않고 우수리포트에 공모할 뿐 아니라 20쪽에 달하는 본고의 핵심논지를 아주 짧게 요약해서 최근 한 일간지에 투고하여 실리기도 하였다. 10여년전 월간지에 게재된 다른 저자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연구사의 연속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다시 언론에 투고함으로써 이후 논쟁의 지속성을 유도하기도 한 것이다. 강의실에서 한 학기 수업 리포트용으로 끝나지 않고 본인의 문제의식을 쟁점화하고 더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높이 사고 싶다.

글쓴이는 페미니즘에 진화생물학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다윈주의 페미니즘'이라고 했다. 글의 전반부에서는 페미니즘에 있어서 적군인 진화생물학을 어떻게 아군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후반부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성매매, 성폭력을 예로 들어 제시하였다. 또한 페미니즘이 진화생물학의 발전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밝힘으로써 둘을 화해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대립보다는 상생과 화합이 서로에게 유익이 될 뿐 아니라 이 시대의 해결책이기도 하다는 점을 글 전체에서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글쓴이는 다양한 기존연구를 끌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싶다. 첫째, 특정대목은 지나치게 다른 이의 의견을 가져와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4.2.1과 4.2.2는 모두 특정 연구자의 견해를 그대로 요약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다윈주의 페미니즘의 징후가 글쓴이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과학자에게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좋은 증거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의 항으로 독립된 부분이라면 요약에서 끝나지 않고 그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혹시 글쓴이의 견해가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대목이 요약이고, 어느 대목은 글쓴이의 견해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둘째, 기존 페미니즘의 견해나 진화생물학 자체의 입장을 각각 장(章)을 달리해 여러 기존연구를 소개하며 길게 설명하는 것은 축소될 필요가 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각각의 이론적인 입장은 간략히 줄이고 글쓴이가 여기서 새롭게 주장하는 바를 더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직접 인용도 조금 더 줄일 것을 권장한다. 지금의 20쪽이라는 분량은 주장하는 논지전개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다윈주의 페미니즘의 입장에 선 과학자들의 견해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한국 연구자들의 경우만을 들고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인용한 외국서들은 모두 다윈주의 페미니즘에 반하는 견해들이어서 외국에서 다윈주의 페미니즘은 어느 정도까지 형성되었는지 그 동향이 함께 언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끝으로, 글쓰기 형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해둔다.

1. 논문을 투고할 당시에는 목차가 없었는데 표지 다음에 전체목차가 있어야 한다.\*
2. 결론은 대개 세부 절로 잘 나누지 않는다. 종합하여 마무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실제 글을 보아도 5.2.는 따로 절로 나누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전의 절들과 비교할 때에도 비중이 적고 내용적으로도 독립되지 않는다.
3. 한 단락이 지나치게 긴 경우가 종종 보인다. 두 단락으로 나누거나 세 단락으로 나누어도 될 대목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4. 4장에서 진화생물학이 성매매와 성폭력을 각각 어떻게 보는지 절을 달리 해서 논의한 것처럼 페미니즘도 어떻게 각각 보는지 절을 달리 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4.1.에서 페미니즘의 입장은 둘을 묶어서 간략히 다루고 4.2.에서 진화생물학의 입장은 다시 항으로 나누어 너무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정소연(기초교육원 과학기술 글쓰기 강의교수)

---

\* 자료집의 통일성을 위해 편집과정에서 목차를 추가했음을 밝혀둡니다.